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방안 - 제주지역 관점

문 익 준*

<목 차>

- | | |
|----------------------|------------------|
| I. 서론 : 중국의 경제발전과 제주 | IV. 제주의 물류중심지 역할 |
| II. 제주의 중국인 여행객 관광산업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제주와 중국의 수출입무역구조 | <참고문헌> |

<국문 초록>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내수시장과 해외 관광시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입장에서 관광산업, 무역분야, 물류의 가능성 3가지 측면에서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살펴보았다. 제주 관광산업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지역 발전의 중요 동력 중의 하나이며, ARIMA 모형으로 향후 관광객을 예측한 결과,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주는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 문제점 개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전략, 홍보와 마케팅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제주의 대중국 수출도 중간재와 최종재로 나누어서 분석할 결과, 일반 무역형태인 최종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또한 1차산업인 음식료품과 농림 수산물 및 농부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제주는 중국에 대해 지역별 전략을 수립하고, 제주의 작물, 어류를 특화시켜 수출해야 한다. 제주는 최고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입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중장기적인 물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어 : 중국, 제주, 관광산업, ARIMA 모형, 무역구조

* 중국 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 경제관리학원 박사연구생, pukkajoon@gmail.com

I. 서론 : 중국의 경제 발전과 제주

최근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8%의 경이로운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중국의 명목 GDP가 일본을 추월해서 단일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현재 G2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09년 8.6%로 급증했으며, 소득 증가로 중국의 내수시장 및 해외관광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관광객은 2010년 6,150만명에서 2020년 1억 5,90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먼저 제주의 지역내 총생산과 산업생산구조를 살펴보자.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은 2009년 기준으로 9조 4776억원으로 1인당 GRDP는 1735만원이며, 2009년 경제성장률은 5.2%이다.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2009년 제주도의 산업생산구조는 서비스 등 3차 산업이 67.4%, 농림어업 18.8%, 건설업 8.3%, 제조업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차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점차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는 도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형성될 수 없는 지역특수성 때문에 외부여건에 의존하게 되고, 주로 관광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감귤 및 여러 어류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1차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1-1. 제주의 지역내 총생산과 산업생산구조〉

연 도	지역내총생산				생산구조			
	경상GRDP (십억원)	1인당 GRDP (백만원)	불변 GRDP (십억원)	경제성 장률 (%)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0	5,350	10.2	6,448	9.5	22.3	3.1	10.3	62.9
2001	5,701	10.8	6,929	7.5	16.5	3.0	10.2	68.5
2002	6,500	12.2	7,446	7.5	16.6	3.1	9.6	69.1
2003	6,965	13.0	7,645	2.7	15.8	2.8	11.0	68.1
2004	7,523	14.0	7,924	3.7	14.6	3.0	11.6	68.8
2005	7,966	14.7	7,966	0.5	18.7	3.1	10.0	66.0
2006	8,096	14.9	8,131	2.1	16.5	2.8	9.5	68.8
2007	8,736	16.0	8,651	6.4	16.4	3.2	9.3	69.0
2008	8,833	16.2	8,334	-3.4	17.6	3.0	8.0	70.3
2009	9,477	17.3	8,739	5.2	18.8	4.1	8.3	67.4

자료 : 통계청

21세기에 G2로 부상하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중국대륙이 바로 이웃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기회이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 전략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의 경제확대 방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제주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본문에서는 관광산업, 무역분야, 물류의 가능성 이 3가지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주의 중국인 여행객 관광산업

1. 제주의 외국인 관광산업

제주는 원래 내국인에 의존하는 관광산업이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중국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0년 전체 관광객중 내국인, 외국인 비중이 각각 92%, 8%였다가, 2010년에는 각각 89%, 11%로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은 680만명, 77만명으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2000년 288,425명에서 2010년 777,000명으로 2.69배 증가하였다.

〈표 II-1〉에 나와 있는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부 감소하는 해도 있었다. 예를 들면, 2002년과 2003년에는 중국에서 SARS가 발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감소하였다. 2008년에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정체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중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외국인 770,00명중에 406,164명을 차지하여 52.27%나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은 향후 몇 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의 제주 관광수입은 3조 7,831억원이며, 이중 내국인 수입은 2조 5,945억원, 외국인 수입은 1조 1,885억원이다. 2011년 1~10월까지의 관광수입은 2조 8,705억원이며, 내국인 수입과 외국인 수입이 각각 2조 1,276억원, 1조 1,885억원이다.

〈표 II-1.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2000~2010년)〉

구분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아시아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0	288,425	-	-	-	-	-	-	-
2001	290,050	0.6	-	-	-	-	-	-
2002	289,496	-0.2	-	-	-	-	-	-
2003	221,017	-23.7	-	-	-	-	-	-
2004	329,215	49.0	-	-	-	-	-	-
2005	378,723	15.0	-	-	-	-	-	-
2006	460,360	21.6	142,912	-	183,168	-	35,150	-
2007	541,274	17.6	176,878	23.8	183,240	0.0	40,336	14.8
2008	540,516	-0.1	174,902	-1.1	177,459	-3.2	53,815	33.4
2009	632,354	17.0	258,414	47.7	183,168	3.2	68,233	26.8
2010	777,000	22.9	406,164	57.2	187,790	2.5	80,425	17.9
2011.1~10월			477,689	30.0	144,898	-9.0	118,229	117.7

자료 : 제주관광공사, 2011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인 관광객을 2009년 처음으로 초월하더니, 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아예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렸다. 2011년에는 그 격차가 3배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중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74,902명으로 -1.1%으로 약간 줄어들었다가 2009년 258,414명, 2010년 406,164명으로 각각 47.7%, 57.2% 증가하였다. 2011년 1~10월까지의 중국인 관광객은 477,689명으로 이미 전년도 관광객 통계를 초과하고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날씨가 따뜻한 6월부터 10월까지의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2. 최근 중국 4년간 중국인 입도 인원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1월	8,177	62.9	16,686	104.1	14,739	-11.7	9,351	-36.6
2월	11,459	-10.2	8,151	-28.9	24,504	200.6	16,832	-31.3
3월	7,304	26.7	12,466	70.7	16,333	31.0	17,836	9.2
4월	18,654	25.6	22,920	22.9	33,915	48.0	27,578	-18.7
5월	13,619	-15.7	12,192	-10.5	40,492	232.1	34,113	-15.8
6월	8,738	-34.0	9,963	14.0	34,306	244.3	47,129	37.4
7월	21,432	4.4	25,144	17.3	48,409	92.5	78,719	62.6
8월	21,907	-20.3	45,086	105.8	65,226	44.7	93,835	43.9
9월	19,988	11.4	29,657	48.4	42,172	42.2	78,518	86.2
10월	17,999	-14.3	38,768	115.4	47,380	22.2	73,778	55.7
11월	13,807	6.0	21,536	56.0	24,000	11.4	-	-
12월	11,818	30.1	15,845	34.1	14,688	-7.3	-	-
1~10월	149,277		221,033	48.1	367,476	66.3	477,689	30.0
계	174,902	-1.1	258,414	47.7	406,164	57.2	-	-

자료 : 제주관광공사

2. 중국의 해외여행산업

2000년 이후 중국의 해외관광객 현황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5,738만명으로 아시아에서 최대이다. 여기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수치도 1,651만명으로 세계에서 제 10위의 관광송출국가이며,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HO)에 의하면, 중국은 2020년에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약 1억명의 관광객을 송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지출 비용도 계속 증가했고, 중국내 소득증가와 위안화 절상 전망을 감안할 때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¹⁾ 그 원인으로서는 지방 부유층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것을 꼽고 있으며, 소비액도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중국의 관광수지는 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국무원의 2015년 관광산업 전망을 보면, 해외여행 송출은 8,300만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을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전 국민들에게 연두차례 정도 국내외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²⁾

1) 중국여유연구원(China Tourism Academy)가 발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00만명이 증가하고 관광 소비액도 약 550억달러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수요세제 개선방안

중국의 국가/지역별 방문국가들을 살펴보면, 홍콩/마카오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본, 한국, 베트남이 주요 국가이며, 2011년에는 한국이 최대 방문국가로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에는 순수관광목적의 방문 중국인 수가 2009년 58만명에서 101만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비자 발급요건 완화노력에 따른 개별관광객 수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권역별 방문 현황이 서울, 인천/경기, 제주, 경상, 강원순으로 각각 91.5%, 53.7%, 31.8%, 20.8%, 15.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단체여행 관광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³⁾

〈표 II-3. 중국의 국가/지역별 중국 출국자 수(2005-2010년)〉

단위 : 만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3,102.63	3,452.36	4,095.40	4,584.44	4,765.63	5,738.65
홍콩	1,352.54	1,433.40	1,613.69	1,755.70	1,866.59	2,309.90
마카오	847.92	989.50	1,277.02	1,552.17	1,512.76	1611.24
대만	-	-	-	-	98.57	166.19
일본	111.70	128.00	145.81	155.65	155.25	196.89
한국	84.33	109.82	131.25	137.43	147.42	196.86
싱가포르	47.72	55.72	64.76	71.26	66.81	82.57
말레이시아	35.47	43.52	57.35	62.26	60.90	103.37
태국	59.55	76.69	71.69	62.39	62.19	101.46
베트남	84.50	50.66	92.03	145.90	134.33	-
미국	52.30	63.78	71.45	77.50	82.42	107.76
독일	22.97	25.77	27.16	25.28	23.57	28.69
러시아	77.05	71.94	73.72	79.00	68.42	71.09
호주	31.80	34.50	39.84	41.31	45.21	54.53

출처 : CEIC

그러면, 과연 중국은 계속 성장하면서 해외 여행객들을 지속적으로 송출할 수 있을 것인가? 2011년 중국경제의 현안문제는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후퇴 우려이다. 2012년에도 이와 같은 우려속에서 중국경제는 긴축완화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1,2사분기를 저점으로 중국경제는 다시 회복될 전망이다. 중국은 향후 투자-수출 주도의 성장방식에서 소비견인형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차이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의하면, 12규획 기간에 경제성장률 목표는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국가별 보고서_중국)], 실태조사는 중북응답임

7.9%p이며, 2016~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7.0%p, 2030년까지는 6.0%p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IMF도 2030년에 중국은 세계 2대 경제국가가 될 것이며, 2050년에는 세계최대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 수요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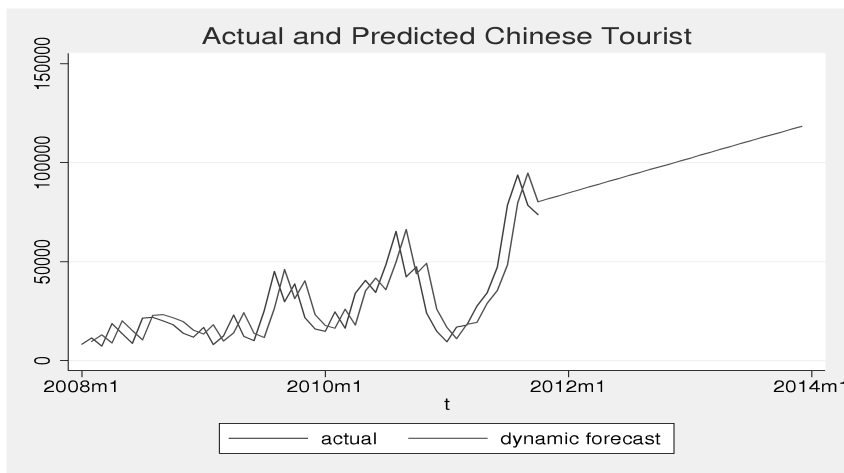
이번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을 과거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예측하여 보자. 분석 방법으로는 비록 정부정책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외생적인 shock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단기예측에 뛰어난 시계열분석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계열 모형으로 Box-Jenkins에 의해서 개발된 ARIMA 모형을 사용하였다. ARIMA 모형은 AR(Auto Regressive) 부분과 MA(Moving Average)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 값의 차이를 따로 모형화할 수 있는 Integrated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다소 복잡한 모형이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이나 설명은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ARIMA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분석된다. 먼저, 자료의 평균과 분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지를 검증하고 불안정할 경우 차분(differencing)을 통해 안정적 시계열로 전환한다. 그리고, 모형 식별을 위해서 자기상관함수(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CF)를 주로 활용한다. 다음 단계에서 잔차항 검사를 통해서 최적의 추정결과를 선정한다.

계량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tata 10.0을 사용하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ARIMA(2,2,0) 모델이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식별되었다. 자료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부 44개이다. 중국인 관광객 통계는 계절적인 요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다. 즉, 동절기와 하절기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1년을 주기로 보았을 때에 샷갓 모양(^)을 하고 있으며 6~9월 사이에 관광객들이 매우 많이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도 2008년은 비교적 완만했으나, 2009년부터 기울기가 커지면서 2011년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8월에는 93,835명이 방문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표 II-4. 계량분석 결과표 : ARIMA(2,2,0)〉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Z-statistic	P-value
Constant	-161,052	1155,414	-0,14	0,889
AR(1)	-.6856142	.1661953	-4,13	0,000
AR(2)	-.3664128	.1247458	-2,94	0,003
sigma	13325,22	1564,763	8,52	0,000



〈그림 II-1.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 수요예측〉

자료 자체가 계절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추세를 대략 살펴보고자 한다. ARIMA 모형중 동태적 예측(Dynamic Forecasting) 방법에 의해서 2013년까지 예측해 보았다. 〈그림 II-1〉의 모형 예측결과를 살펴 보면, 중국인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2년 8월에는 94,960명, 2013년 8월에는 112,543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시계열분석은 중장기에는 정확하지 못하고 외생적 충격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요예측은 단순히 미래의 기본값(baseline)을 추정하기 위함이고, 여기서 이번 분석의 의미를 두고 싶다.

4.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는 제주 지역 발전의 중요 동력 중의 하나

로, 향후 중국인 관광객 방문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주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첫째,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단체관광위주, 덤핑 위주의 질 낮은 저가 여행상품, 관광쇼핑 및 결제제도 개선등을 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 순수관광 목적의 중국인 방한관광은 단체관광이 주를 이루어 왔다. 최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행시간 경쟁심화로 인해 단체여행상품의 덤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가의 덤핑상품은 불편한 잠자리, 과다한 쇼핑일정, 맛있는 음식서비스, 낮은 음식서비스 제공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저가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며, 또한 제도적 개선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점점 더 성숙해짐에 따라 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중국인의 관광 수요에 맞춘 고급 단체관광 상품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인 여행객들은 쇼핑이 주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관광쇼핑 및 결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중국 인렌카드(직불카드) 사용 편의 개선이 중요하다.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중국현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직불식 카드인 중국 인렌카드 사용을 ATM이나 주요 관광쇼핑시설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는 특화된 관광인프라 개선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한다.

제주의 정책중 무사증제도⁴⁾ 또한 여행객들을 유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던 22개 국가를 11개 국가로 대폭 축소하였다. 그러나, 5인이상 단체관광객에게만 무사증입국을 허용해 오다가 2008년 2월 19일 중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 출국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무사증 입국제도 전후대비 중국인 관광객 수도 2.0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선, 2008)

둘째, 관광교류 협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목적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상대적으로 발달된 지역인 산동성, 랴오닝성, 베이징시, 상하이시등은 여가위락휴가와 사업/전문활동 목적이 많고 조선족들이 많은 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친구친지방문 목적이 많다. 특히, 동북지역은 2010년부터 해외

4)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는 최대 3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8년 2만 3천 354명에 불과하던 무사증 입국자 수가 2009년 6만 9천572명, 지난해 10만 8천 679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사증으로 이탈하는 중국인도 2008년 398명, 2009년 346명, 2010년 832명으로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점차 증가하면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동포비자가 발급됨에 따라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지역은 제주간 지역간 직항이 확보돼 있고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이지만 미주, 유럽으로 수요가 이탈하고 있어 이를 제주로 유치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는 2011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의 13개 도시와 158개의 운항편수를 기록하고 있다. 서부 내륙지역은 현재 수요가 없지만 최초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향후 제주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제주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계속 집중해야 한다. 사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내륙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섬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바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관광축제,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상품개발 등을 개발해야 한다. 내국인관광객에 편중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여 동남아 최고의 휴양형 국제관광자유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장조사와 행태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홍보, 마케팅 강화와 수용태세 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중국은 1년중 여러번의 황금연휴에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관광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주도의 매력을 국제적으로 마케팅하는 한편 취약한 부분인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Ⅲ. 제주와 중국의 수출입무역구조

1. 제주의 대중 수출, 수입 현황

본 장에서는 제주의 해외 수출, 수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2010년 제주의 수출은 98백만불로 전년도 동기대비 12.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이 가장 큰 수출국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순이다. 중국은 다섯 번째 수출국으로 2010년 2,454,898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다. 2011년 1~10월까지의 수출액은 1,067,000달러로 전년도 동기대비 44.9%나 감소하여 3번 연속으로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표 II-1. 제주의 국가별 해외 수출 현황〉

단위 : 천불

		2009		2010		2011년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일본	60,879	7.8	62,561	2.8	47,285	3.1
2	미국	6,953	15.4	9,142	31.5	9,067	29.9
3	베트남	2,193	98.5	3,766	71.7	2,483	22.6
4	인도	9	-69.7	3,007	34,496	-	-
5	중국	2,492	-18.5	2,455	-1.5	1,067	-44.9
6	대만	1,062	-52.5	1,569	47.8	1,137	-8.5
7	베네수엘라	12	-97.9	1,426	12,286	440	-69.2
8	영국	1,099	263	1,379	25.5	833	-20.3
9	네덜란드	776	-22.8	1,213	56.4	518	-45.5
10	이탈리아	153	168.2	1,034	575.8	625	-2.1
	합계	87,384	4.9	98,042	12.2	73,953	1.8

자료 : 무역협회

제주의 대중국 수출은 2000년 246,283달러에서 2010년 2,454,898달러로 증가하였다. 반면 제주의 대중국 수입은 2000년 11,926,715달러에서 2010년 22,367,628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입의 증가속도는 수출 증가율보다는 완만하지만,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상당해서 대중 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2010년과 2011년의 수출, 수입품목을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중국과의 수출확대방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II-2. 제주의 대중 수출, 수입 현황〉

단위 : US 달러

년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246,283	-	11,926,715	-5
2001	158,831	-35.5	10,527,779	-11.7
2002	407,878	156.8	15,357,889	45.9
2003	803,070	96.9	24,061,531	56.7
2004	1,040,801	29.6	15,365,963	-36.1
2005	1,300,172	24.9	20,652,080	34.4
2006	782,437	-39.8	25,484,545	23.4
2007	2,080,140	165.9	19,924,107	-21.8
2008	3,057,336	47	14,410,827	-27.7
2009	2,492,033	-18.5	16,379,235	13.7
2010	2,454,898	-1.5	23,271,659	42.1
2011	1,066,502	-44.9	22,367,628	25.7

자료 : 무역협회

HS코드 10단위로 대중수출현황을 분석한 결과표는 다음과 같다. 2010년 1~5위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난초, 기타 면직물, 미역, 유자, 광수와 탄산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품목 순위를 보면, 1위 품목은 hs코드 121220인 해초류와 기타 조류(미역)류이며, 2위 품목은 hs 코드 200830인 감귤류 과실(유자), 3위 품목은 삼치이며, 4위 품목은 난초, 5위 품목은 광수와 탄산수이다. 최근 2년간 1~5위 품목이 1차산업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 제주의 대중국 수출 품목(2010년, 2011년 1월~10월)〉

단위 : 미달러

순위	2010년			2011년 1~10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난초	762,938	672.8	미역	335,630	114.7
2	기타 면직물	374,436	-	유자	181,170	-3.7
3	미역	299,640	400.4	삼치	150,460	-
4	유자	275,302	64.1	난초	90,200	-87.7
5	광수와 탄산수	93,636	-89.1	광수와 탄산수	53,332	-4.9
6	삼치	91,360	-	음향증폭세트	49,813	0.6
7	넙치	90,022	-	기타	46,045	68.4
8	디램	82,734	-	기타	39,253	181.9
9	냉동어류 기타	74,618	-	인스턴트 커피	32,500	-
10	음향증폭세트	63,235	-	소주	26,327	192.5
합계		2,454,898	-1.5		1,066,502	-44.9

자료 : 무역협회

반면 제주의 대중국 수입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주의 대중국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수입 1~5위 품목은 배터리, 돔 종류, 방직용 섬유재료, 고구마, 화강암수이고, 2011년 1~10월까지의 수입 1~5위 품목은 배터리, 방직용 섬유재료, 고구마, 돔 종류, 고등어 순이었다.

〈표 II-4. 제주의 대중국 수입 품목(2010년, 2011년 1월~10월)〉

단위 : 천불

순위	2010년			2011년 1~10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бат데리	2,890	63.7	бат데리	3643	55.3
2	돔 종류	1,975	-3.5	방직용 섬유재료	1,700	6.6
3	방직용 섬유재료	1,693	56.9	고구마	1,594	119
4	고구마	1,312	39.3	돔 종류	1,329	7.1
5	화강암	1,293	-12.5	고등어	963	-
6	옥돔	960	207	매트리스 기타	901	2,388
7	전갱이	956	40.1	맥아추출물	798	2.9
8	광수와 탄산수	869	-	음향기기 부속품	702	107.9
9	맥아추출물	776	-49.9	폴리염화비닐	551	96.7
10	광전지	630	-	옥돔	532	-16
합계		23,272	42.1		22,368	25.7

자료 : 무역협회

2. 제주의 대중 수출 산업별 분류

중국정부는 최근 내수주도의 성장전략 변화 및 가공무역 축소 정책으로 중국의 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일반무역 수입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전체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5.3%에서 2010년 38.9%로 3년간 6.4% 감소한 반면에 일반무역의 비중은 동기간 44.5%에서 55.1%로 10.6% 증가하였다.⁵⁾ 이에 따라 HS 코드 6단위로 표시된 제주의 대중국 수출품목을 중간재와 최종재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일반무역으로 구분되는 제주의 대중국 수출통계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는 품목을 골라내어 부록의 〈표 1〉과 같이 26개의 품목으로 계산하고 이에 해당되는 품목만 첨가하였다. 26개 품목군 분류는 부록의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분류표에 의해 2011년 1~10월까지의 수출품목들 22개를 분석해 보았다. 22개중 중간재는 6개, 최종재는 16개로 최종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1년 1~10월의 수출금액은 총 1,066,502달러로 중간재가 37,368달러로 3.5%를 차지하고 최종재가 1,029,134달러로 96.5%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현지 가공이후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가공무역 형태가 많은 것이 특징인 반면, 제주의 대중국 수출은 일반 무역형태인 최종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1차산업인 식료품과 농림 수산물 및

5) 정환우(2011) p23, 경사연 협동연구-무역투자 분과보고서 한중 무역구조 및 중국의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미출판 보고서

농부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표 II-5. 제주의 대중국 수출의 중간재, 최종재 분류(2011년 1~10월)〉

	산업분류	품목수	금액	합계
중간재	농부산품 및 식품	1	20,207	37,368 (6품목)
	전자통신 부품	1	9,400	
	통신기기 부품	1	3,991	
	섬유	2	1,703	
	플라스틱	1	2,067	
최종재	음식료품	3	118,912	1,029,134 (16품목)
	농림 수산물 및 농부산품	7	810,197	
	전자통신	2	95,858	
	화학제품	2	3,986	
	섬유의류	1	91	
	문교 체육용품 공예품 및 기타	1	90	
총계		22	1,066,502	1,066,502

자료 : 저자 계산

3. 중국과 제주의 상호 투자 현황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다.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라 2011년 6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2만 1,435건, 총투자액은 337.0억달러로 각각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42.8%, 19.2%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유형별 대중국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통계도 살펴보면, 2011년 9월말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49,004건이며 투자액도 459.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⁶⁾ 2008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급속하게 감소하였는데, 원인으로는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위안화 절상, 한국기업의 중국 경영실적 악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투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하여 12억 1414만달러를 기록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이후 8억 5034만달러로 감소했다. 2009년에 다시 12억 1780달러로 회복하였다가 2010년에는 다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6) 통계 집계 기준의 차이를 금융 부문 포함 여부로 인한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의 통계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되는 금액을 집계한 것이고, 중국 상무부의 통계는 한국 현지법인의 투자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중국측 통계가 한국측 통계보다 크게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KIEP, 2011,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표 II-6. 한국과 중국의 상호 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한국의 對중국 투자액 (한국 수출입통계)	한국의 對중국 투자 (중국 상무부 통계)	중국의 對한국 해외직접투자(누계)
2003	17.8	44.9	2.3
2004	23.6	62.5	5.6
2005	28.1	51.7	8.8
2006	34.3	38.9	9.4
2007	52.6	36.8	12.1
2008	37.5	31.4	8.5
2009	21.2	27.0	12.1
2010	31.6	26.9	6.3

출처 : 중국상무연감 2011

제주의 대중국 투자현황이나 중국의 대제주 투자현황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제주와 중국간의 상호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서는 다룰 수가 없다. 그러나, 제주는 일찍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예를 들면, 제주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⁷⁾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김동욱(2007)은 조세특례의 투자지원세제 확대와 정당한 논리개발,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 금지, 선두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 및 탄력적 투자 감면기간 확대, 조세지원의 대상 범위 확대와 조세지원의 감면수준 제고등을 주장했다. 또한 제주는 국내 최초 부동산 영주권 제도⁸⁾를 도입하여 실제로 제주도내 부동산을 매입한 투자자가 있었으며 중국인의 제주 투자는 향후 증가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 무역 교류 확대 방안

첫째, 중국의 지역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중국은 연안지역 중심의 수출 위주 경제전략에서 탈피해 내수를 중시하는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고 산업의

- 7) 제주도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근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 8) 외국인 도지사가 허가한 개발사업지구시행지구 내의 콘도 등 5억원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부동산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함)한 경우 5년간 F2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5년 경과후 결격사유 심사 후 투자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까지 한국영주권(F5)이 부여되는 제도임.

질적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북 3성의 창지투개 발계획 지원성의 창춘, 지린, 투먼을 연계발전시키는 전략이나 충칭을 중심으로 서부내륙개발 계획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창지투 프로젝트는 변경도시인 훈춘과 북한의 나선특별시의 항구를 통해서 동북지역의 자원과 상품의 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올 북한의 나선특별 시와 연계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에서 동해안 시대가 새로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동부연해지역이 과거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교류를 심화하면서 성장이 유망한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제주는 감귤같은 특수작물이나 특정어류를 특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산업이나 수출품 목등을 개발하기 보다는 현재 특색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 면, 제주의 감귤산업은 감귤은 제주농업의 주소득 작목로서 GRDP의 7%, 농업조수입의 40% 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6. 제주의 감귤산업 현황〉

	재배면적(ha)	가구당 생산량(M/T)	조수입	가구당 조수입(백만원)
2000	25,796	15.4	370,811	10.1
2001	25,408	17.8	361,667	10.0
2002	25,207	22.5	316,494	9.0
2003	24,460	19.0	470,415	13.9
2004	22,048	19.1	610,491	19.5
2005	21,430	21.6	600,639	19.6
2006	21,382	20.5	660,288	21.5
2007	21,339	24.1	441,883	14.3
2008	20,937	19.1	631,500	20.4
2009	20,898	23.8	601,113	19.3

출처 : 제주지역 경제통계연보 2010

또한, 일부 어업도 차별화 또는 고급화하여 공략이 가능하다. 2010년 대중 수출 7위를 차지한 넙치의 경우를 살펴 보자. 우리나라 넙치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으로 전체 수출량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넙치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량 증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의 활넙치는 한국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수율이 좋지 않은 편이다. 중국 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잡한 수입통관절차와 과도한 부과세이다. 또한 어류중 전복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자 소비국이기

때문에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전복의 수출량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복 수출업체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주로 수출업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따라서 전복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격적인 수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는 품목별 대표브랜드 개발에 힘써야 한다.⁹⁾

올해에는 수출이 줄었지만,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2010년과 같이 중국의 고급농산물 수용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의 화훼 및 채소 수출이 가능하다.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농산물 완전개방 시대에 걸맞는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업과 청정이미지를 브랜드화한 비교우위전략화로 고부가가치 산업화 실현해야 한다. 또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과 수출방안도 함께 모색해 봐야 한다.

IV. 제주의 물류중심지 역할

제주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 국제관광지로 부상, 세계 최대 농,수,축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 인접,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공항과 항만시설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등을 장점으로 지니고 있다. 2011년 10월 현재 중국의 13개 도시들과 직항 및 전세기를 이용하여 총 158편이 운행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33편이 증설되었다. <표 III-1.>를 살펴보면, 중국의 동부연안지역인 푸둥, 북경, 대련에서 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2009, 한국 해양수산물개발원, 김, 넘치, 전복에 관한 연구

〈표 III-1. 2011년 10월 제주 도착 중국 국제선 운항 통계〉

도시명	2010년 10월		2011년 10월	
	항공편	이용객	항공편	이용객
장춘	12	938	9	1,282
창사	-	-	6	964
대련	18	2,013	10	1,295
후허하오터	-	-	5	413
항저우	9	1,076	9	1,246
하얼빈	2	301	2	358
닝보	-	-	9	1,325
난징	-	-	2	189
북경	26	2,937	26	3,318
푸둥	31	3,520	62	7,102
심양	5	406	9	753
쉬지아쭈양	3	306	-	-
천진	2	260	2	181
우한	8	517	-	-
연대	7	417	-	-
서안	-	-	7	1,194
소계	123	12,691	158	19,530

자료 : 제주관광공사

2010년 중국, 일본, 대만 3개국은 2,688편의 직항 및 전세기 노선이 제주공항에 도착하였고, 이를 이용한 여행객은 360,117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중 중국의 경우 1,249편의 노선과 136,674명의 여행객이 이를 이용하였다. 2009년 대비 278편이 증가하였고, 인원수도 37,535명의 여행객이 증가하였다. 제주는 신공항 건설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 계획이 연기되었다. 제주공항 이용객이 2015년 1580만명, 2020년 1870만명, 2025년 2110만명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포화상태가 예상되나, 20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와 비교조사를 통해 신공항 건설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이러한 뛰어난 입지조건을 항공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잘 이용해야 한다. 2002년 해양부는 해운 비즈니스벨트(Shipping Business Belt)계획을 발표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¹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제 물동량의 99%가 항만을 통하기 때문에 최고의 해운업기지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선박금융은 서울에서, 국제물류 처리는 부산과 광양에서, 그리고 선박 등록은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서울, 부산과 광양, 그리고 제주의 해운물류기능을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 계획중 제주를 선박등록

10) 한국경제(2002년 8월 28일), “해운비즈니스 벨트 만든다” 참조

특구로 연계시켜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하여 국내선사 및 외국선사의 해외지적 선박을 제주도로 유치하려고 했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제주선박등록특구에 선적항을 둔 국적외항선박(국적취득조건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차후 이러한 계획을 다시 추진하여 제주가 세계적인 선박등록 중심지로 등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제주는 출입국 편의제공은 주로 항공여행자를 위한 공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최근 다른 국가의 관광객과는 달리 중국 관광객들의 항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¹¹⁾ 중장기적으로 서해를 활용한 중국 크루즈 여행의 시대가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각 항구 도시 등에 새롭게 크루즈 여객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크루즈여행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와 같이 본문에서 우리는 관광산업, 무역분야, 물류의 가능성 이 3가지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관광산업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주 지역 발전의 중요 동력 중의 하나로 이미 자리잡았으며, 향후 중국인 관광객 방문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주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전략을 세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주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계속 집중해야 한다.

제주의 대중국 수출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1년 1~10월의 수출금액은 총 1,066,502달러로 중간재가 37,368달러로 3.5%를 차지하고 최종재가 1,029,134달러로 9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주의 대중국 수출은 일반무역형태인 최종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1차산업인 음식료품과 농림 수산물 및 농부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역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감귤같은 특수작물, 넉치, 전복 등 특정어류를 특화시켜 수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제주는 최고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공항과 항만시설 확충으로 동북아 국제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11) 한국관광공사(2008)에 따르면, 인천항 이용자가 2008년 19.1%이고, 부산항이 5.1%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2012년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한,중 관계가 새롭게 전환될 수 있는 해로서, 다양한 한중행사를 제주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민간 분야에서 포럼, 학술행사, 교류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중영화특별전 등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2장에서 사용한 중국인 관광객 수요예측모형인 ARIMA 모형은 외부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중장기 모형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교대상이 되는 기본값과 미래 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고 싶다. 보다 정확한 모형을 위해 여러 가지 검정과 다른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추후 연구로 남겨 두겠다.

〈참고문헌〉

- 김동욱(2007),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
- 이효선(2008), “중국인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주요국 비자제도 운영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승신(2011), “대 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KIEP, 미출판 보고서.
- 옥영수외(2009), “김, 넉치, 전복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장병권(2010),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환우(2011), “협동연구-무역투자 분과보고서 한중 무역구조 및 중국의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미출판 보고서.
- 제주관광공사 마케팅팀(2011), “제주관광시장동향 분석”, Vol. 11.
- 중국 상무연감(2011).
- 최경은(2011), “중국과의 관광교류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국가별 보고서_중국)”.
- 한국은행 제주본부(2011), 제주지역 경제통계연보.
CEIC
- Hamilton, J. D.(1994), Time series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国务院(2011), “2030年中国经济情景预测”, 宏观经济研究, 第6期.

[부록 1]

〈부록 표 1. 산업별 중간재, 최종재 산업분류 분류〉

분류	품목명
중간재	△ 농부산물 및 식품 △ 비금속 광물 △ 석유제품 및 코크스 △ 화학원료 △ 플라스틱 △ 고무 △ 가죽 및 모피 △ 목재, 종이, 인쇄 △ 섬유 △ 화학섬유 △ 모자, 공예품 및 기타 △ 철강 △ 비철금속 △ 금속제품 △ 전기기기 및 장비부품 △ 정밀, 광학기기 부품 △ 일반기계 부품 △ 특수목적 기계 부품 △ 전자통신 부품 △ 컴퓨터 부품 △ 통신기기 부품 △ 반도체 △ 영상음향 기기 부품 △ 기타 전자부품 △ 자동차 부품 △ 기타 운송기기 부품
최종재	△ 음식료품 △ 농림수산물 및 농부산물 △ 섬유, 의류 △ 가죽, 모피 제품 △ 화학제품 △ 교통운송기기 △ 전기기기 및 장비 △ 전자통신 △ 일반기계 제품 △ 특수목적 기계 △ 정밀, 광학기기 △ 철강제품 △ 비철금속 제품 △ 금속제품 △ 가구 △ 문교체육용품, 공예품 및 기타 △ 종이, 인쇄 △ 플라스틱 △ 목재가공, 죽, 등제품 △ 고무 △ 비금속광물 △ 담배 △ 화학섬유

〈부록 표 2. 산업별 중간재,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¹²⁾

분류	산업	HS code
중간재	농부산물 및 식품	180620
	전자 통신 부품	8535-8538
	통신기기 부품	851890
	섬유	5110-5113, 5208-5212
	플라스틱	3923
최종재	음식료품	2208
	농림 수산물 및 농부산물	1704, 2001-2009, 2101
	전자통신	8417(851790제외), 8518(851890제외)
	화학제품	3303-3307
	섬유의류	6201-6217
	문교 체육용품 공예품 및 기타	9503-9508

12) 편의상 본문에서 분류되고 사용된 26개 품목의 HS 코드만 표에 기록함.